

본문: 마태복음 2 장 1-12 절

제목: 현자의 선물 (The Gift of the Magi)

1.

여러분 중에 40 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성탄절만은 친구따라 교회에 가신 적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즐길 것들이 많이 없었지요. 하지만 성탄절에 교회에 가면 일단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맛난 과자와 떡과 과일을 한 보따리 받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은 아이들에게 무척 인기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산타크로스가 활동을 잘 안 했던 건지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죠. 성탄 전날 밤이 되면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마다 성탄 발표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캐롤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성탄 연극도 했습니다. 성탄 연극을 위해 성탄절 몇 주 전부터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회로 모여서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은 즐겁기만 했습니다. 성탄절 연극에 단골 손님처럼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니 그 때 기억이 새삼스레 다시 떠오르네요.

동쪽에서 온 박사라는 뜻이 동방박사죠. 그리스 말로 동쪽은 아나톨레인데 해가 뜨는 쪽이란 뜻입니다. 박사라는 그리스 말은 지혜자(wise man)라는 뜻을 가진 magos 의 복수 형태인 magoi 입니다. 영어로는 Magi 라고 하죠.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 쪽에 살던 별로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나 그 근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 익숙했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죠. 점성술은 통계를 바탕으로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는 기술입니다(주역). 동방박사들은 별들의 변화를 통계로 만들고 그것에 따라 인간의 삶을 예측하는 과학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과학자이기도 하면서 철학자였을 것이고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지혜자들이었을 겁니다.

2.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죠. 동방박사들도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고 별을 따라 그 왕을 만나기 위해 직접 온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했다면 1200Km(745mile)가 넘는 거리이고 하루 30 킬로미터씩 이동한다 쳐도 40 일이나 걸려서 도착했을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방 민족에게 까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방박사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눈치가 없는 건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찾아 간 곳은 예루살렘의 헤롯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출신의 이방인인데 로마의 인정을 받아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래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지만 그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왕 앞에 가서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님을 바로 앞에 두고 “내 님은 어디에 있냐?” 이런 노래를 하는 거랑 같은 상황인 겁니다. 왕 앞에서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그 질문을 받은 왕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어 보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미가서 5 장 2 절을 왕에게 답으로 줍니다.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이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그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돌아 오는 길에 자기도 경배하러 가고 싶으니 꼭 자기를 만나고 가 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죠. 큰 별은 10 킬로미터 되는 길을 아주 자세하게 앞서가며 박사들을 안내했습니다. 별이 정확하게 아기가 계신 곳에서 멈추자 박사들은 들어가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에게 꿇어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해 온 선물 상자를 열어 아기에게 드렸죠. 그들이 드린 선물이 세 종류라서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린 선물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세 가지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 것들은 모두 매우 귀중하고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은 아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선물이었죠.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은 엄마에게 방문할 때 무엇을 선물로 가지고 방문하죠? 배냇 저고리나 기저귀, 분유 같은 아기 용품을

선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선물한 것들은 아기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3.

황금과 유향은 이사야서 60 장 3, 6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3).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6).”**

예루살렘에 구원의 빛이 임할 때 이방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경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져 오는 물품 중에 금과 유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향과 몰약은 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내는 향수의 재료로도 사용되는 물건이었죠. 출애굽기 30 장 25 절에 보면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유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향이 나는 기름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성막을 만들 때 모든 기구와 제단에 바르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매우 좋은 향기가 났을 것인데 이 향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몰약과 유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향은 곡식제사를 드릴 때 곡식과 함께 태워지는 재료로서 아주 좋은 향기를 내는 물품이었습니다.

이 선물들을 살펴 보면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매우 값비싼 물품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왕에게 드려지기에 적합한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어울리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유향으로 왕의 발을 씻었다고 전해집니다. 에스더서 2 장 12 절을 보면 왕실의 여인들이 왕을 보러 가기 위해 미용으로 몰약과 유향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열두 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여섯 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여섯 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동방박사들의 선물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게 적합한 선물이었습니다. 셋째, 동방박사들의 선물은 그 아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묘를 매우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의 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묘에 황금과 온갖 보석을 왕과 함께 매장했습니다. 왕의 시체는 미라로 만들었는데 미라에 반드시 필요한 약재가 몰약이었다고 합니다. 유향은 마리아가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아기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제단에 태워지는 제물이 유향과 함께 태워지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듯 그렇게 자기 생명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한 동시에 그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리는 그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미리 알려주는 선물들이었다는 거죠. 유향과 몰약처럼 많은 이들의 삶에 향기를 주고,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황금처럼 값진 인생을 이 아기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숨겨 있었죠. 또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동방박사들의 선물은 예수님의 가족이 박해를 버티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헤롯은 베들레헴 일대의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게 되죠? 이집트로 피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매우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었고 이 선물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 이민 생활을 하는 데 큰 보탬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선물은 큰 의미가 있는 선물이기도 했고, 실제적인 삶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선물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죠.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동방박사들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들려질 우리들의 선물은 황금처럼 무척 아름답고 유향과 몰약처럼 매우 향기로운 치료재여야 할 겁니다. 황금처럼 다른 이들의 삶을 부요케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유향과 몰약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매우 빛나면서 매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강력한 선물이죠. 사랑이야말로 메마른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참 값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오 헨리(Oh Henry)의 소설 중에 “현자(동방박사)의 선물 (The Gift of the Magi)”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에 동방박사를 뜻하는 Megi 가 나오네요. 남편 짐(Jim)과 부인 델라(Della)는 젊은 부부입니다. 짐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시계와 델라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금발 머리카락이 그것이었죠. 델라와 짐은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가지고 있는 돈이라곤 고작 1.87 불 뿐이었습니다. 델라는 남편 짐이 그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계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금으로 된 시계줄을 선물하기 위해, 남편이 그리도 아끼는 자신의 금발을 잘라서 팔기로 합니다. 머리카락을 판 돈 20 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1.87 불에서 1 불을 보태 21 불로 시계줄을 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편 짐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빗어줄 ‘빗(comb)’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시계를 팔아버리죠. 그 빗은 평소에 아내가 사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보고만 지나치던 물건이었죠. 결국 둘은 바보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델라가 크게 웃자 남편은 그녀를 크게 안아 주며 이야기는 마무리 됩니다. 오 헨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현자(동방박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막 태어난 아기 예수께 선물들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성탄절 선물을 처음으로 전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물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두 명의 현명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둘은 각각 서로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팔았지요. 그러나 내가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현자(동방박사들)들입니다.”

짐과 델라가 바보가 아니라 현명한 이유는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향기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빛나는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은 치료약이며 참 기쁨을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선물하는 현자이길 축복합니다.